



B형 간염 치료 정보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만성 감염된 사람들에게 미래는 밝아보입니다. 10년전만해도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바이러스로 손상된 간의 악화를 늦출 수 있는 약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 손상이 줄어들고 나중에 간질환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활발한 새로운 연구활동과 함께,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완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HBV 치료법들이 공식 승인 받았는가? 현재 미국에서 만성 HBV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3가지 약은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라미부딘, 그리고 인터페론-알파가 있습니다. 인터페론-알파(인트론 A)는 한 주에 서너번 주사로 주입합니다. 이 약은 독감에 걸린 것같은 증세, 우울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미부딘(Epvir-HBV, Zeffix 또는 Heptodin)은 하루에 한 알 먹는 정제로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아데포비어 디피복실(Hepsera)도 정제인데, 하루에 한 알씩 일년 이상 복용해야 하며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약들을 복용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재생이 감소되거나 정지됩니다. 또한 간 손상이 향상되고 4-6주 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라미부딘을 복용한 환자들 중 3분의 1은 새로운 B형 간염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는데, 이 변종은 간을 해치는 원래 바이러스보다가 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라미부딘은 1-2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FDA는 이 약들을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로 승인하긴 했지만 완전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형 간염으로 인한 간 손상 위험을 훨씬 줄여줍니다. 미국과 그 밖의 국가에서는 B형 간염 치료제로 그밖에 서너 개의 다른 새로운 약들을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하나? 만성 HBV 환자라고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질환을 현재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약물 치료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 감염 환자들은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은(혹은 더 자주) 의사를 찾아가서 약물 치료를 받건 안 받건 상관 없이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승인받았는지 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HBV 약의 임상실험이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임상실험은 무엇인가? 임상실험은 엄격히 통제된 환경에서 과연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 또는 의료 절차가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의학계의 가장 최근 연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현재 임상실험 중인 HBV 요법들이 많이 있으며, 새롭고 효과적인 많은 치료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려면 B형 간염재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HBV 임상실험 명단을 참고하십시오: www.hepb.org/patients/hepatitis_b_clinical_trials.

HBV 치료법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우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가 최근 치료 요법에 관하여 잘 모르면, 간염 전문의에게 연락하십시오. B형 간염재단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 www.hepb.org/korean. 저희에게 전화하시거나(215-489-4900) 이메일을 하시면(info@hepb.org 영어 사용),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미국립보건원(NIH)을 방문하여 임상실험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www.clinicaltrials.gov 또는 센터 위치 방문: www.centerwatch.com.

